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성장세 심화
- 2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87.3으로 전년동월대비 18.3% 감소

○ 서울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증가, 대형마트 감소
- 1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5.6% 증가, 대형마트 각각 10.9% 감소
- 백화점 판매액 증가 원인은 환율급등으로 인한 외국인 구매 증가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형마트의 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는 설명절 이동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9% 상승
- 2월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111.9로 전월대비 0.6% 증가하였으나, 전도시 평균(0.7%)보다 낮게 상승
- 전월에 비하여 모든 부문에서 상승, 특히 배추, 양파 등 신선식품 등의 식료품 부문이 1.5%, 학원비 및 납입금 인상 영향으로 교육부문 1.1% 각각 상승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마이너스 성장세 이어감
- 3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3%p 감소한 61.1%로 나타남

○ 서울의 취업자 수 2008년 3월 이후 감소세 지속
- 3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4명(-2.3%) 감소한 4,819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73천명(-2.6%), 여자는 41천명(-1.9%)이 각각 감소
-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0.6%p 상승하여 약간의 반등현상 나타냄

○ 서울의 실업률 전국대비 0.9%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월 서울의 실업률은 4.9%로 전년동월대비 0.8%p상승, 남자는 0.7%p상승, 여자는 0.4%p 하락

부동산

○ 2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086십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 공공부문은 정부 및 지자체의 도로 및 시설공사 발주 증가로 인한 전년대비 증가, 민간부문은 금년 발주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감소

○ 3월 기준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반전
- 강남지역은 급반등한 가격에 대한 부담과 급매물 소진으로 추격매수세가 부진한 가운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지연되면서 관망세가 심화되어 하락세로 돌아섬
- 강북지역은 0.3% 하락, 강남지역도 0.3% 하락

○ 3월 기준 강남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크게 확대
- 봄철 이사수요 증가로 강북지역 상승세 지속, 강남지역 거의 모든 지역 상승세 회복
- 강북지역은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보합세 유지, 강남지역은 0.7% 크게 상승

금융

○ 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 2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97조 332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22% 감소

○ 2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409개로 전월대비 17.9%(214개) 증가

○ 2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73개로 전월보다 29.8%(31개) 감소

○ 3월 서울시 수입과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 3월 서울의 수출은 25.9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9% 감소. 수출 1순위는 금은 및 백금 다음은 편직물,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의 순
- 3월 서울의 수입은 55.6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5.5%의 감소율을 기록.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의류 등의 순

Ⅰ 생·산 Ⅰ

2월 산업생산지수 1월을 저점으로 성장세 둔화

■ 전국 2월 산업생산 지난달보다 마이너스 성작폭 다소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는 10.3% 감소한 반면,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6.8%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서 전월대비 1.2%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는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부진하였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등의 호조로 0.1% 증가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성장세 둔화

- 2009년 2월 중 서울시 산업생산지수는 87.3(2005=100)으로 전년 동월대비 18.3% 감소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17.9% 감소
- 업종별로는 의복 및 모피 제조업 등이 증가한 반면,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기계장비, 전기장비, 제조업, 가스업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

■ 서울의 중공업부문 경공업대비 회복속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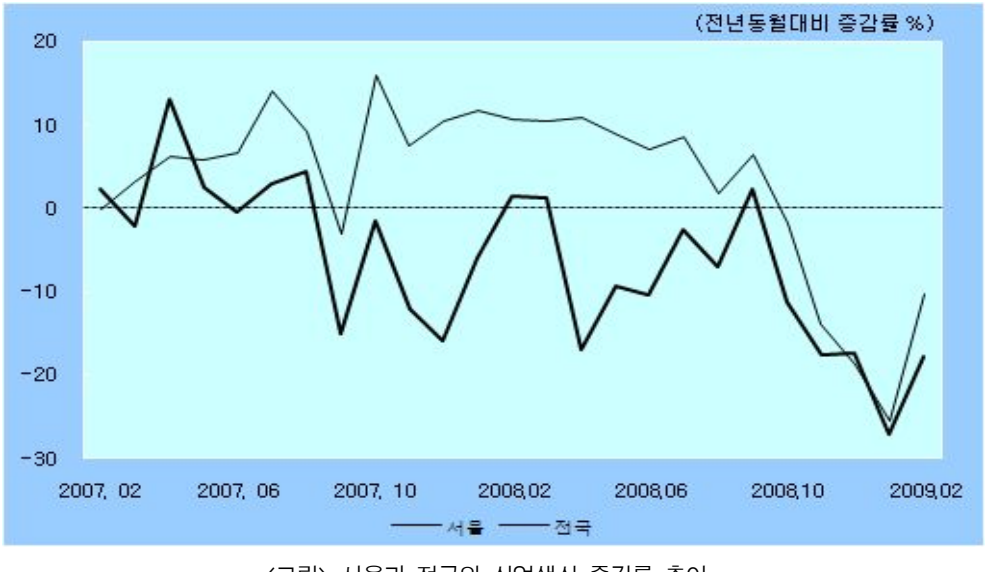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40.1% 감소로, 1월의 전년동월대비 지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5% 감소로, 1월의 전년동월대비 지수보다 감소폭이 크게 둔화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월	10월	11월	12월	1월p	2월p
전년동월비	전국		10.7	−1.9	−13.8	−18.7	−25.5	−10.3
			(−12.0)	(6.4)	(−12.8)	(−9.5)	(−5.7)	(6.8)
	서울 (제조업)		1.5	−11.2	−17.7	−17.5	−27.2	−17.9
			(−10.6)	(−0.3)	(−14.0)	(−1.9)	(−11.7)	(0.8)
		중공업	−4.2	−24.7	−30.5	−28.1	−45.0	−40.1
			(2.7)	(−10.3)	(−16.5)	(7.4)	(−31.6)	(11.8)
		경공업	6.1	−2.0	−9.5	−10.0	−16.7	−1.5
			(−18.3)	(5.9)	(−12.7)	(−6.4)	(−0.4)	(−3.4)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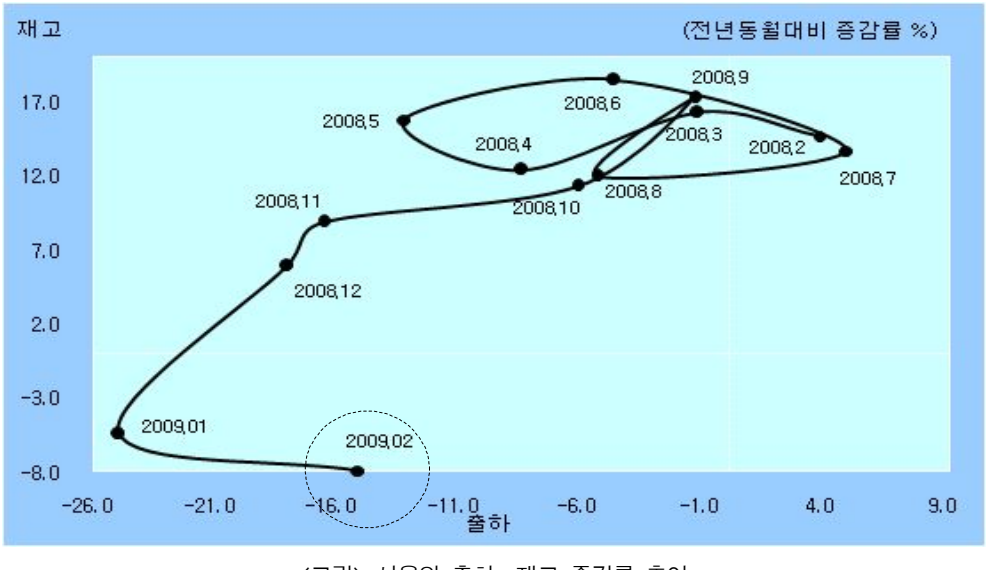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2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서울지역의 2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49.3으로 전년동월대비 7.9% 감소

- 업종별로는 식료품 제조업 등이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의복 및 모피, 화학제품, 기계장비 제조업 등에서 감소
- 출하는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여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전월대비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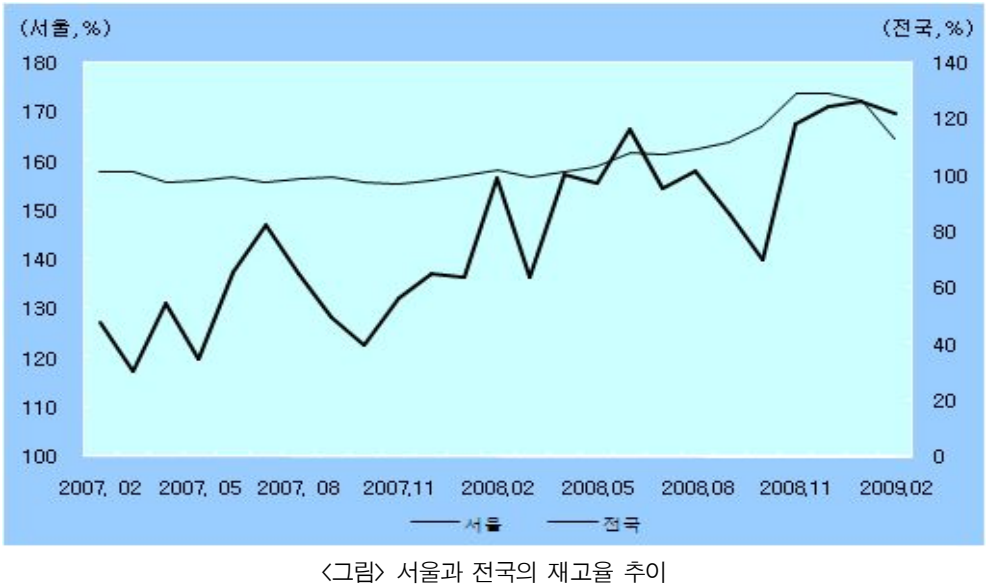
- 2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13.1%로 전월대비 13.5%p 감소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69.9%로 전월대비 2.2%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8.5%p 감소한 174.3%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3.7%p 증가한 162.5%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2월	10월	11월	12월	1월p	2월p	
재고율	전국		101.9	117.4	128.9	129.2	126.6	113.1	−13.5
	서울		156.5	140.1	167.6	171.1	172.1	169.9	−2.2
		중공업	142.0	155.6	198.9	150.4	192.8	174.3	−18.5
		경공업	166.7	131.2	152.0	177.6	158.8	162.5	3.7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출하 원지수)×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2월 서울의 대형마트 전년동월대비 판매액 소폭 감소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6.2%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는 증가한 반면, 승용차 등의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에서는 감소함

■ 서울 대형소매점의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증가, 대형마트 감소

-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2,746억으로 전국대비 33.9%의 구성비를 보임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설명절 이동(전년2월→금년1월)으로 음식료품 판매는 저조하였으나 환율급등으로 인한 외국인 구매 증가하여 신발, 의복, 운동·오락용품, 주방용품, 귀금속 판매호조로 5.6% 증가
- 전월대비로는 설(신정,구정)효과 소멸로 인해 주방용품, 음식료품의 판매저조로 금월 21.7% 감소
-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로는 설명절 이동(전년 2월→금년 1월)으로 인해 음식료품, 가방, 의복 판매저조로 10.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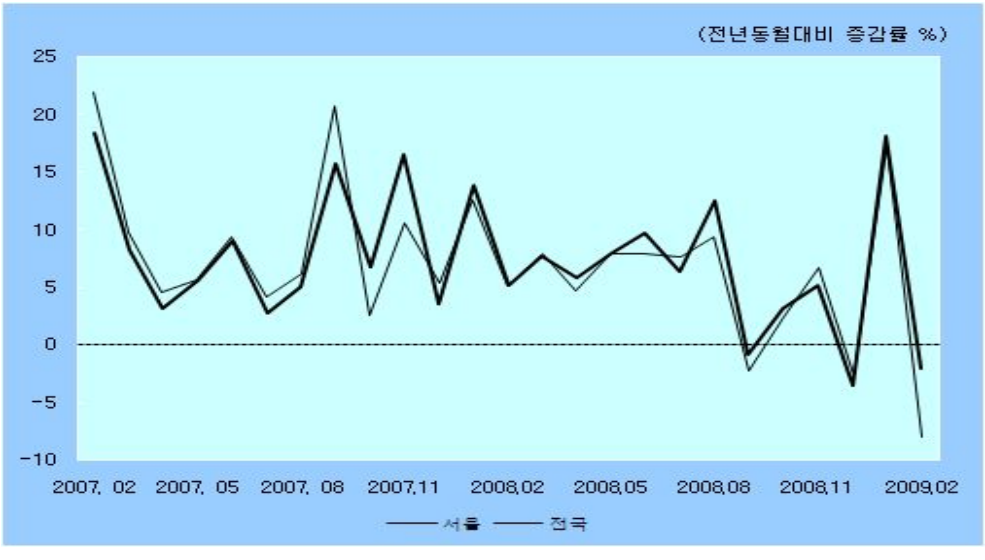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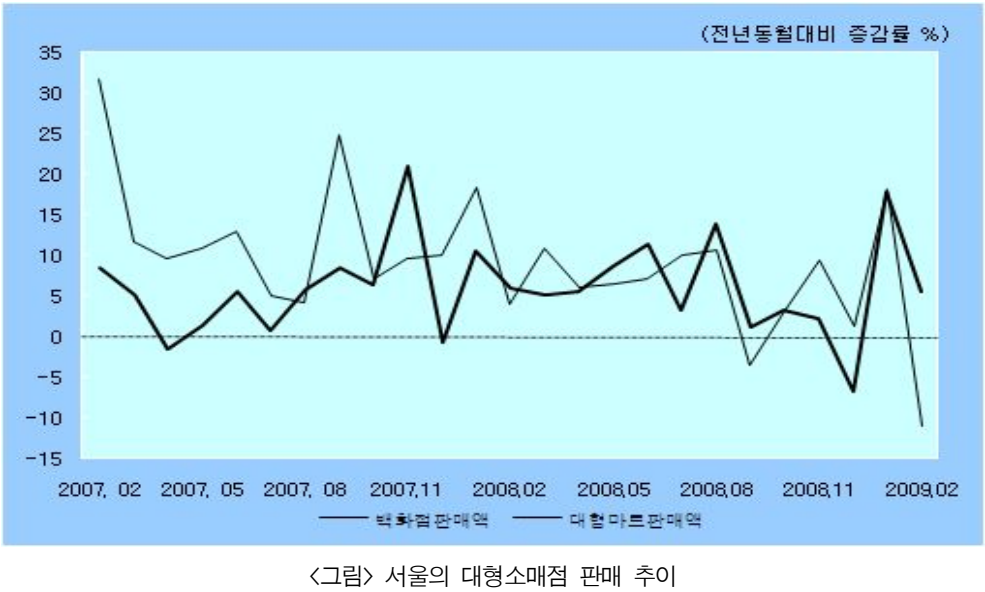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2월	10월	11월	12월	1월p	2월p
판매액	전국		4088.0 (5.1)	4124.5 (2.4)	4400.8 (6.7)	4404.3 (−2.6)	4779.3 (17.2)	3759.3 (−8.0)
	서울		1300.4 (5.1)	1427.4 (3.2)	1535.3 (5.1)	1519.2 (−3.5)	1631.9 (18.1)	1274.6 (−2.0)
		백화점	701.7 (6.2)	861.1 (3.3)	930.6 (2.4)	898.0 (−6.6)	946.3 (18.0)	741.1 (5.6)
		대형마트 (할인점)	598.7 (4.0)	566.2 (3.2)	604.6 (9.5)	621.2 (1.4)	685.6 (18.2)	533.5 (−10.9)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2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가 |

3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과 동일한 수준

-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3.9% 각각 상승
- 전월대비 보합인 통신부문을 제외하고 전월에 비해 나머지 부문 모두 상승
-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이 1.6%, 교육부문이 1.4%, 가구집기·가사용품 부문이 1.2% 각각 상승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0.1%p 미미한 상승

- 3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1.9로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9% 각각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는 서울이 전도시 평균(0.7%)보다 낮게 상승한 반면, 부산, 대구, 경기는 평규과 같으며, 인천, 대전 등 그 밖의 도시는 전도시 평균보다 높게 상승함
- 전월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상승, 특히 배추, 양파 등 신선식품의 상승으로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이 1.5% , 각종 학원비 및 납입금 인상 영향으로 교육부문 1.1% 각각 상승

■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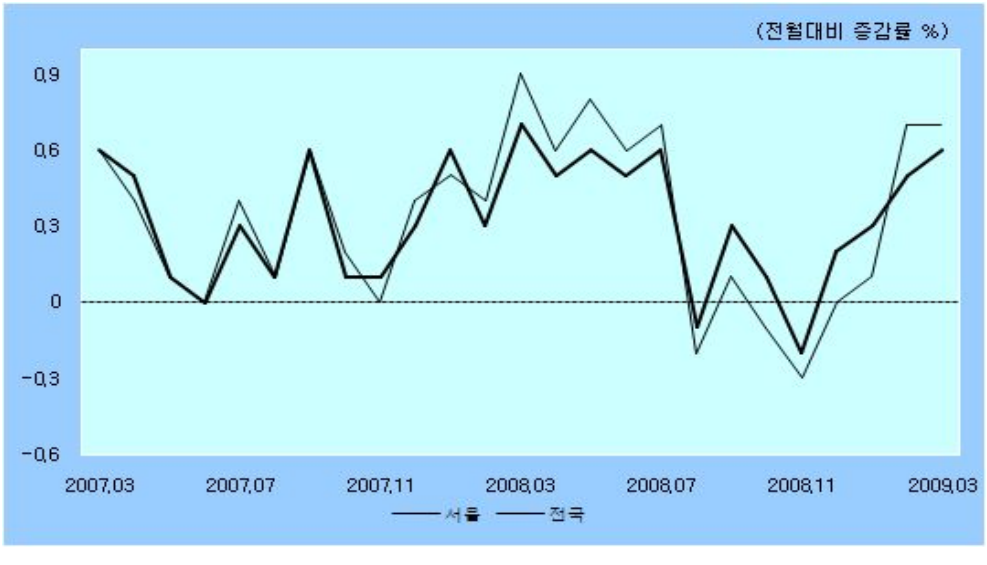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9%(전국:1.1%), 전년동월대비 3.2%(전국:3.1%)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2%(전국 : 4.3%) 전년동월대비 10.2%(전국:10.8%) 각각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비	전국		0.9 (3.9)	−0.1 (4.8)	−0.3 (4.5)	0.0 (4.1)	0.1 (3.7)	0.7 (4.1)	0.7 (3.9)
	서울		0.7 (3.6)	0.1 (4.4)	−0.2 (4.2)	0.2 (4.1)	0.3 (3.7)	0.5 (3.9)	0.6 (3.9)
	상품 성질별	상품	0.2 (3.9)	−0.1 (6.0)	−1.1 (4.9)	0.3 (4.6)	0.5 (4.4)	1.2 (5.6)	1.1 (6.5)
		서비스	0.9 (3.2)	0.2 (3.6)	0.4 (3.8)	0.1 (3.7)	0.1 (3.4)	0.2 (3.2)	0.4 (2.6)
	생활물가		0.9 (4.3)	−0.3 (4.1)	−0.4 (3.6)	−0.4 (2.9)	0.4 (2.9)	0.5 (3.2)	0.9 (3.2)
	신선식품		−4.4 (−5.1)	−2.0 (−15.6)	−2.0 (−11.7)	3.4 (−7.9)	7.3 (0.3)	1.6 (2.1)	3.2 (10.2)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제·활·동·인·구 |

3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소폭증가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9%p 증가

- 전국 3월 15세 이상인구는 39,93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3천명(1.2%)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06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6천명(-0.2%)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183천명으로 66천명(0.5%)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9,879천명으로 118천명(-1.2%)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하였음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1.1%로 전월대비 1.0%p 상승

- 3월 15세이상인구는 8,30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천명(0.8%)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07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천명(-1.5%)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경제활동인구	전국	0.6 (1.7)	0.4 (0.5)	0.4 (-0.1)	0.2 (-2.2)	-0.1 (-1.3)	-0.2 (-0.2)	-0.2 (1.7)
	서울	1.0 (1.1)	-1.7 (-0.2)	-1.8 (-0.1)	-1.4 (-0.8)	-1.4 (0.1)	-2.0 (-1.3)	-1.5 (1.6)
	남자	0.2 (0.9)	-0.9 (-0.2)	-1.0 (0.2)	-1.1 (-1.1)	-0.8 (0.3)	-1.2 (-0.9)	-0.8 (1.3)
	여자	2.1 (1.4)	-2.7 (-0.2)	-2.8 (-0.3)	-2.0 (-0.5)	-2.3 (-0.3)	-3.1 (-1.7)	-2.4 (2.2)
경제활동참가율	전국	61.1	61.9	61.8	60.4	59.5	59.3	60.2
	서울	62.4	61.6	61.5	60.9	60.9	60.1	61.1
	남자	73.8	73.2	73.2	72.4	72.5	71.8	72.7
	여자	51.6	50.6	50.4	50.1	49.9	49.1	50.1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업·자 |

3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월대비 감소세 둔화

■ 전국의 3월 취업자 수 40대 이하에서 감소, 50대 이상에서 증가

- 3월 취업자는 23,11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5천명(-0.8%)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5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천명(-0.3%) 감소하였고, 여자는 9,568천명으로 149천명(-1.5%)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음

■ 서울의 3월 취업자 수 2008년 3월 이후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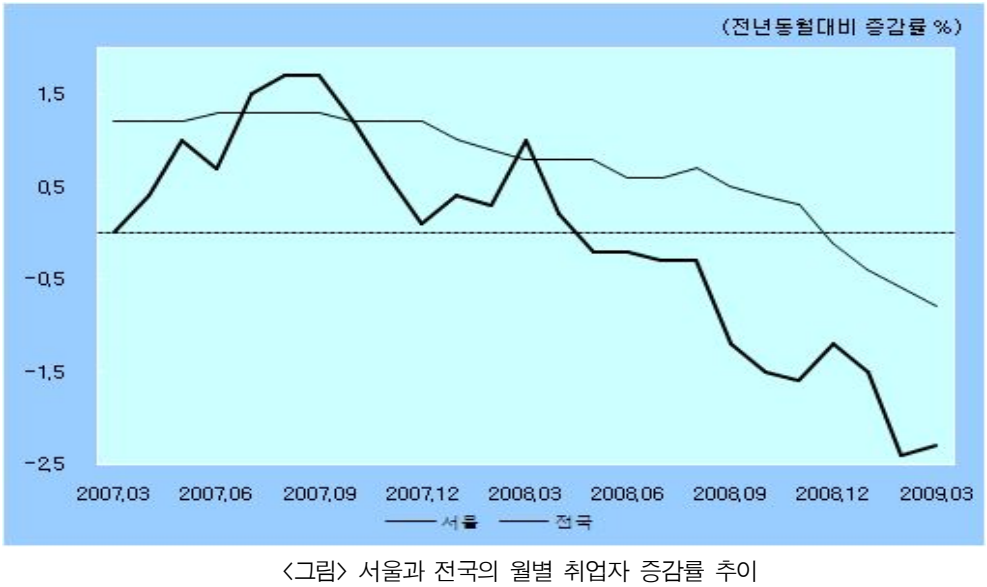
- 2009년 3월 취업자는 4,81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4천명(-2.3%)이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55천명, 여자는 2,0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73천명(-2.6%), 여자는 41천명(-1.9%)이 각각 감소하였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1천명(27.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65천명(3.8%)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78천명(-12.0%), 건설업 39천명(-9.4%), 도소매·음식숙박업 47천명(-3.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5천명(-2.1%)은 각각 감소하였음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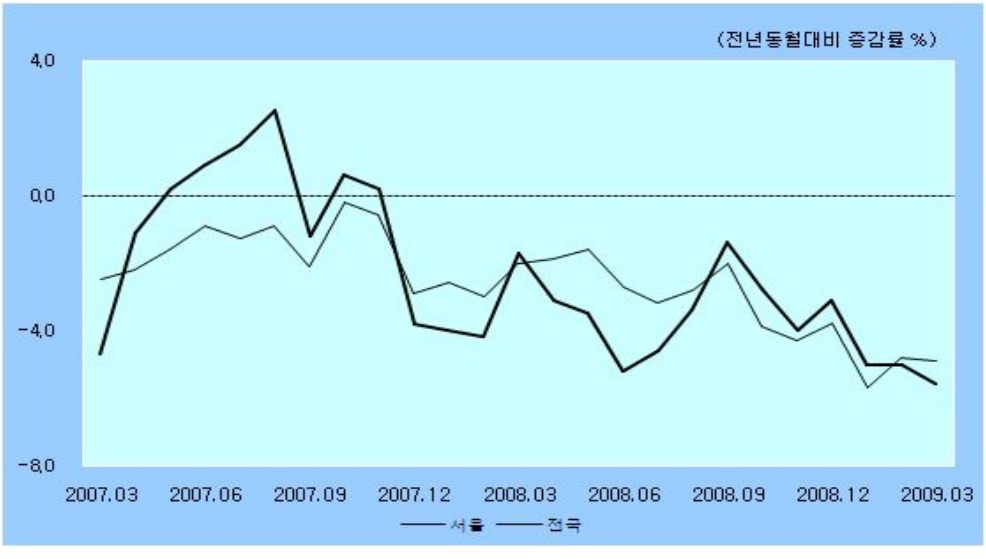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취업자	전국	0.8 (1.8)	0.4 (0.5)	0.3 (−0.1)	−0.1 (−2.4)	−0.4 (−1.7)	−0.6 (−0.5)	−0.8 (1.6)
	서울	1.0 (1.5)	−1.5 (−0.2)	−1.6 (−0.2)	−1.2 (−0.9)	−1.5 (−0.3)	−2.4 (−2.0)	−2.3 (1.6)
	남자	0.4 (1.5)	−0.8 (−0.3)	−1.4 (−0.3)	−1.5 (−1.3)	−1.4 (−0.1)	−2.2 (−1.7)	−2.6 (1.1)
	여자	1.9 (1.5)	−2.3 (−0.1)	−1.9 (−0.1)	−0.9 (−0.4)	−1.6 (−0.6)	−2.8 (−2.3)	−1.9 (2.3)
청년층 취업자	전국	−2.0 (−1.2)	−3.9 (−0.7)	−4.3 (0.1)	−3.8 (−1.0)	−5.7 (0.5)	−4.8 (−1.6)	−4.9 (−1.3)
	서울	−1.7 (0.5)	−2.8 (−2.0)	−4.0 (−0.2)	−3.1 (−2.2)	−5.0 (1.6)	−5.0 (−3.2)	−5.6 (−0.2)
고령층 취업자	전국	3.9 (5.2)	2.1 (0.4)	3.3 (−0.9)	1.3 (−8.4)	1.3 (−4.3)	1.6 (0.7)	2.1 (7.5)
	서울	2.9 (2.5)	−2.0 (−0.7)	−1.6 (−1.2)	−1.0 (−2.2)	0.1 (0.1)	0.4 (−1.4)	1.8 (5.2)
	55−59세	7.3 (1.9)	0.4 (−1.2)	2.3 (0.5)	1.1 (−2.0)	4.0 (2.4)	3.4 (−0.6)	6.6 (5.1)
	60세 이상	−2.4 (5.4)	−3.8 (−0.3)	−4.6 (−2.5)	−2.5 (−2.5)	−3.1 (−1.8)	−2.1 (−2.1)	−2.2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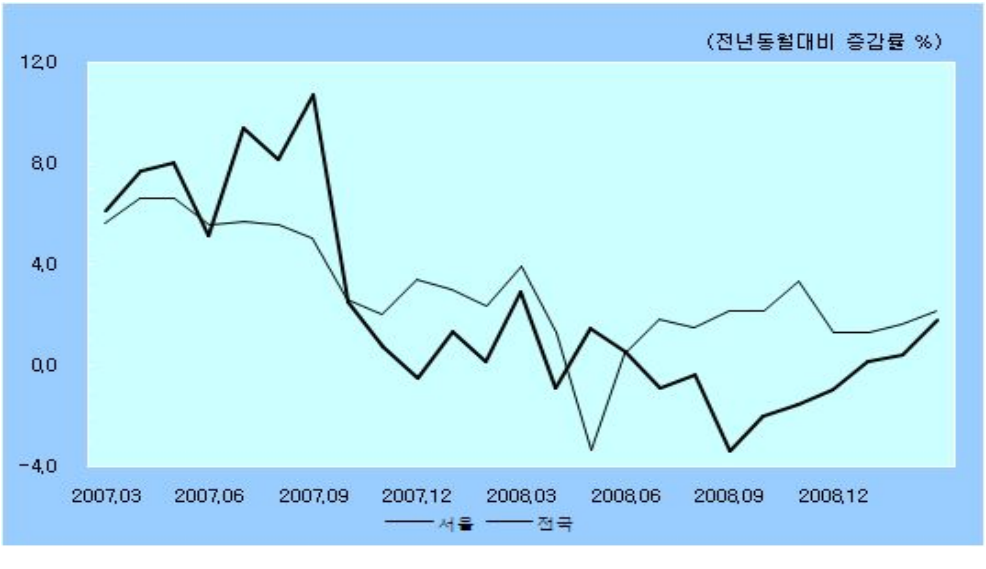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직업별로 사무종사자 및 상승세 지속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천명(58.6%), 사무종사자 40천명(5.0%)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78천명(-5.6%), 서비스·판매종사자 61천명(-4.6%),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7천명(-1.2%)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비임금근로자 미미한 증가 폭 확대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196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112천명(-8.5%), 임금근로자는 2천명(-0.1%)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94천명(-8.4%), 무급가족종사자는 18천명(-9.1%)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9천명(3.7%)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65천명(-5.4%), 일용근로자 6천명(-1.2%)이 각각 감소

■ 일시휴직자 및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각각 17.9%, 2.1%감소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1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명(-3.0%)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4,26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9천명(-2.1%)이 감소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천명(-6.4%), 감소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4천명(-1.2%)이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1천명(1.9%)이 증가하였고, 54시간이상 취업자는 141천명(-8.9%)이 감소
- 일시휴직자는 4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17.9%)이 감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7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산업별	제조업	−0.4	−13.0	−14.4	−15.3	−13.5	−14.4	−12.0
		(8.6)	(−4.3)	(−10.6)	(−0.7)	(2.9)	(−5.8)	(11.6)
	SOC 및 기타서비스업	1.3	0.4	0.2	0.8	0.3	−0.7	−0.8
		(0.5)	(0.4)	(1.2)	(−0.9)	(−0.7)	(−1.5)	(0.4)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	0.4	1.0	3.2	4.2	3.7	5.3	3.8
		(1.0)	(1.5)	(1.6)	(−0.6)	(−1.8)	(0.8)	(−0.5)
	도소매 · 음식숙박	0.7	2.0	−1.1	−1.5	−1.9	−3.3	−3.4
		(0.5)	(−0.4)	(−0.4)	(1.5)	(−1.1)	(−1.5)	(0.4)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	7.1	−1.4	−3.1	−1.0	−0.6	−2.0	−2.1
		(−0.7)	(1.3)	(2.8)	(−2.0)	(3.4)	(−3.4)	(−0.8)
	건설업	−2.5	−4.0	−2.6	−2.4	−4.5	−14.8	−9.4
		(0.5)	(−3.5)	(2.0)	(−7.8)	(−1.5)	(−8.1)	(6.9)
직업별	전문 · 기술 · 행정관리자	9.6	2.2	4.6	3.6	−2.2	1.7	−1.2
		(1.4)	(−2.2)	(1.4)	(−0.1)	(−0.3)	(1.2)	(−1.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6.2	−6.4	−7.3	−7.1	−7.3	−10.3	−5.6
		(1.2)	(0.2)	(−3.7)	(−3.2)	(−1.7)	(−5.1)	(6.5)
	서비스 · 판매종사자	1.6	0.1	−2.8	−1.2	0.6	−2.3	−4.6
		(2.7)	(1.0)	(2.0)	(−0.7)	(0.4)	(−2.8)	(0.3)
	사무종사자	−0.2	−0.9	0.1	0.9	6.7	3.7	5.0
		(0.3)	(0.7)	(−0.5)	(1.4)	(0.8)	(−1.2)	(1.6)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1.0	−0.6	0.0	0.3	−0.2	−1.1	−0.1
		(0.8)	(−0.3)	(−0.1)	(−0.7)	(0.1)	(−2.4)	(1.9)
	비임금근로자	1.2	−3.8	−6.1	−5.5	−5.1	−6.1	−8.5
		(3.5)	(0.2)	(−0.5)	(−1.5)	(−1.5)	(−0.7)	(0.8)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업·률 |

3월 서울의 실업률 전국대비 0.9%p 높음

■ 전국의 실업률 4.0%로 지속적인 상승세 나타냄

- 3월 실업자는 95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2천명(17.6%)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4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2천명(21.2%) 증가하였고, 여자는 31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천명(10.7%) 증가
-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5%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여자는 3.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계절조정 실업률은 3.7%로 전월대비 0.2%p 상승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음

■ 서울의 실업률 4.9%로 전국의 실업률에 비해 0.9%p 높음

- 2009년 3월 실업자는 2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천명(18.1%)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천명(38.3%)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73천명으로 11천명(-13.1%)이 감소
- 실업률은 4.9%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1%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하였고, 여자는 3.4%로 0.4%p 하락
- 서울시 실업률은 4.9%로 전국의 실업률 4.0%에 비하여 0.9%p 높은 수준

■ 서울의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1.9%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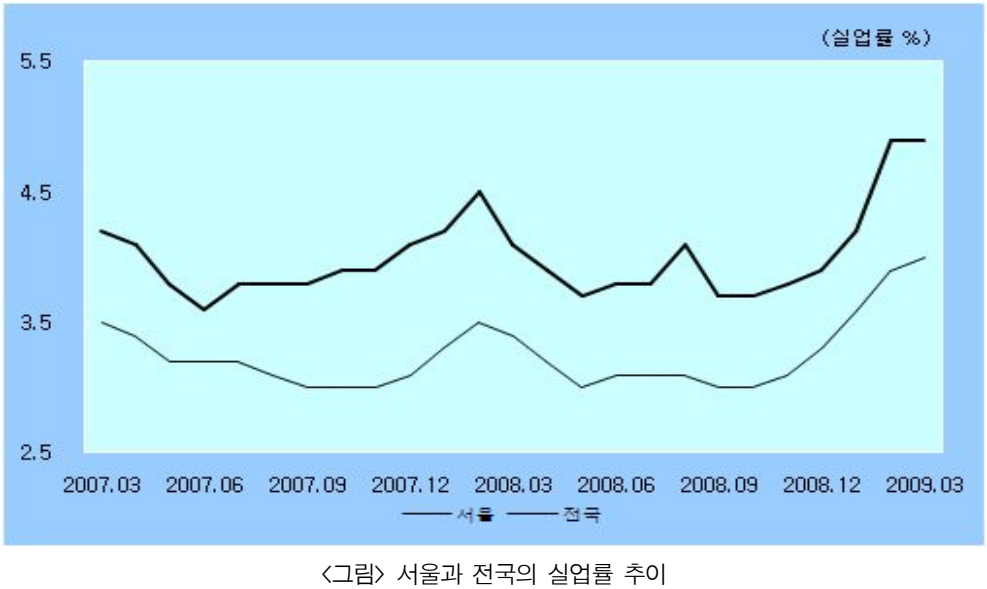
- 2009년 3월 고용률은 58.0%로 전년동월 대비 1.9%포인트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2%로 전년동월대비 2.4%포인트, 여자는 48.4%로 1.3%포인트 각각 하락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실업률	전국		3.4	3.0	3.1	3.3	3.6	3.9	4.0
	서울		4.1	3.7	3.8	3.9	4.2	4.9	4.9
	성별	남자	4.4	4.2	4.6	4.8	5.2	5.9	6.1
		여자	3.8	3.0	2.8	2.6	2.9	3.5	3.4
고용률	전국		59.1	60.0	59.9	58.4	57.3	57.0	57.9
	서울		59.9	59.3	59.1	58.6	58.3	57.2	58.0
	성별	남자	70.6	70.1	69.9	68.9	68.7	67.5	68.2
		여자	49.7	49.1	49.0	48.8	48.5	47.3	48.4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설·경·기 |

2009년 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소폭 감소(전년동월 대비)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4,879십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7%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086십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22.3%를 차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에서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92.4%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는 16.4% 감소. 건축부문은 7.4% 감소하였고 토목부문은 116.5% 증가
- 공공부문은 정부 및 지자체의 도로 및 시설공사 발주 증가로 인한 전년대비 증가, 민간부문은 전년에는 사옥 및 주택공사의 발주가 많았으나, 금년 발주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감소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감소(전년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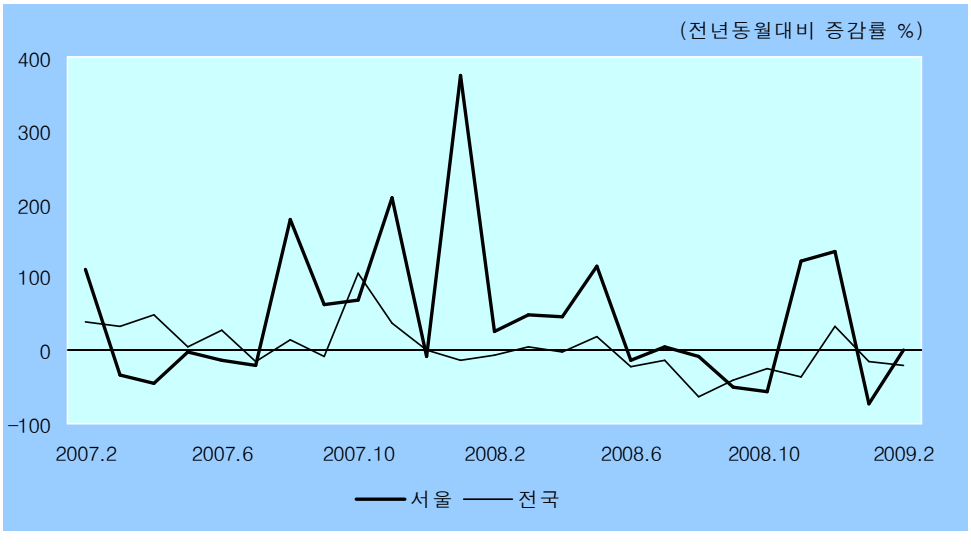
- 2009년 2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1,430.2천㎡로 전년동월 대비 51.0% 감소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20.0% 증가, 아파트는 87.4% 감소.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84.5% 감소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상업 부문이 44.5% 감소, 공업부문이 91.8% 감소, 문교 및 사회 부문이 52.1% 감소, 기타 부문이 97.0% 감소.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47.8%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8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6,152	8,131	7,954	21,721	5,333	4,879	−20.7	−8.5
서울		1,091	926	3,014	3,736	626	1,086	−0.5	73.5
발주자별	공공	101	573	596	678	266	195	92.4	−26.7
	민간	990	229	2,307	3,042	359	827	−16.4	130.4
공종별	건축	1,031	874	2,855	3,313	520	954	−7.4	83.5
	토목	60	50	158	414	104	130	116.5	25.0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서울		2,919.6	1,912.4	1,978.9	2,827.7	1,271.6	1,430.2	−51.0	12.5
주거용	소계	252.9	38.4	29.7	169.2	19.2	39.1	−84.5	103.6
	단독	6.0	13.3	8.8	7.4	3.5	7.2	20.0	105.7
	연립	1.3	7.2	2.8	10.7	2.2	0.0	−	−
	아파트	252.5	17.9	18.1	151.1	13.5	31.9	−87.4	136.3
비주거용	소계	2,666.7	1,874.0	1,949.2	2,658.5	1,252.4	1,391.1	−47.8	11.1
	상업	1,862.2	1,367.4	1,175.1	1,482.0	820.8	1,032.8	−44.5	25.8
	공업	48.6	34.7	207.0	326.3	29.8	4.0	−91.8	−86.6
	문교/사회	738.9	462.8	563.2	797.5	397.4	353.8	−52.1	−11.0
	기타	16.9	9.1	3.9	52.7	4.4	0.5	−97.0	−88.6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3월 서울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 하락 반전

■ 3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 축소

- 3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3개월 연속 하락 폭이 축소되는 모습(-0.7% -> -0.6% -> -0.3% -> -0.2%)
- 봄 이사철을 맞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지역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2% 하락으로 낙폭이 다소 축소
- 3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최고점인 2008년 9월 대비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락률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 3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반전

- 강남지역(-0.3%)은 급반등한 가격에 대한 부담과 급매물 소진으로 추격매수세가 부진한 가운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지연되면서 관망세가 심화되어 하락세로 돌아섬
- 강북지역(-0.3%)에서는 거래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도봉구(-1.1%)와 은평구(-0.6%)가 경기침체에 따른 매수세 부진으로 하락 폭이 크게 확대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3월	2월	3월		
전국		98.3	99.2	99.0	0.7	-0.2
서울		97.9	99.2	99.0	1.1	-0.2
아파트		99.2	98.9	98.7	-0.6	-0.3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5.8	99.2	98.9	3.2	-0.3
	강남	100.2	99.2	99.1	-1.1	-0.1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하락지역은 도봉구, 은평구, 노원구

- 강북지역(-0.3%)에서는 도봉구(-1.1%)와 은평구(-0.6%)가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노원구(-0.4%)와 용산구(-0.3%)도 크게 하락
- 반면, 중구(0.1%)는 유일하게 강북지역에서 상승한 지역으로 나타남

■ 강남지역에서는 강동구, 양천구 상승세

- 강남지역(-0.3%)에서는 강동구(0.4%)가 재건축 규제완화 및 금리하락으로 전월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양천구(0.1%)도 9호선 개통 등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감
- 반면, 금천구(-0.4%)는 거래 침체로 크게 하락하고, 송파구(-0.3%)는 투기지역해제 지연에 따른 매수자 관망세 심화로 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하락반전

■ 3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소폭 하락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3월 27일 기준)은 1,739.2만원으로 전월(1,741.3만원)보다 소폭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157만원), 서초구(2,517만원), 용산구(2,513만원), 송파구(2,318만원), 양천구(1,834만원), 광진구(1,773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3만원), 은평구(1,074만원), 중랑구(1,118만원), 강북구(1,121만원) 등 순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3월 강남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크게 확대

■ 3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4개월만에 반등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상승지역이 크게 확대되어 전월대비 0.1% 상승하며 4개월간의 하락세를 접고 반등
- 수도권(0.2%)과 기타지방(0.1%)이 반등하고 광역시(-0.1%)도 하락세가 완화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2% 상승하며 5개월만에 상승반전되고 연립주택이 0.1%로 전월대비 하락폭 축소, 단독주택은 -0.1%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기록

■ 3월 서울 강남지역 상승 폭 크게 확대

- 강북지역(0.0%)에서는 동대문구(0.6%)가 전농·답십리 뉴타운 이주수요 증가에 따른 매물부족으로 큰 폭으로 반등하고 광진구(0.6%)도 전월에 이어 상승세 지속. 반면, 은평구(-0.8%), 용산구(-0.5%) 등 지역은 하락세 지속
- 강남지역(0.7%)에서는 영등포구(-0.1%)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회복한 가운데 강동구(2.0%), 송파구(1.5%), 서초구(1.1%)가 대단지 재건축 입주물량 소진 및 봄철 이사수요 증가로 상승세 지속

■ 주요 상승지역은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동대문구

- 강북지역에서는 동대문구(0.6%)와 광진구(0.6%)가 전월에 이어 상승세 지속. 중구(0.4%), 종로구(0.3%), 성북구(0.3%)도 크게 상승
- 강남지역에서는 영등포구(-0.1%)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회복한 가운데 강동구(2.0%), 송파구(1.5%), 서초구(1.1%)가 크게 상승. 금천구(0.6%)와 동작구(0.6%)도 크게 상승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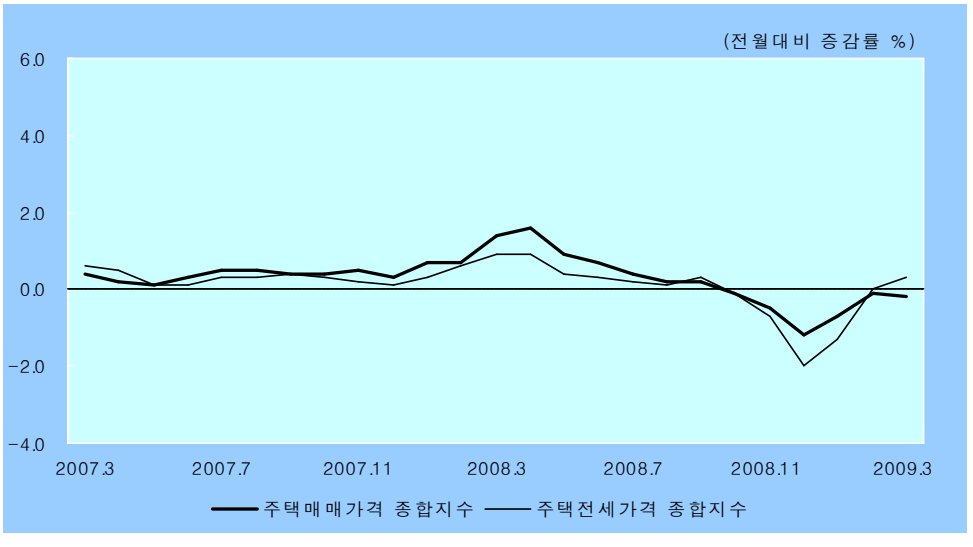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3월	2월	3월		
전국		99.4	98.8	98.9	-0.5	0.1
서울		100.7	98.7	99.1	-1.6	0.3
아파트		103.0	98.5	99.2	-3.7	0.7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9.1	98.7	98.7	-0.4	0.0
	강남	102.3	98.8	99.4	-2.8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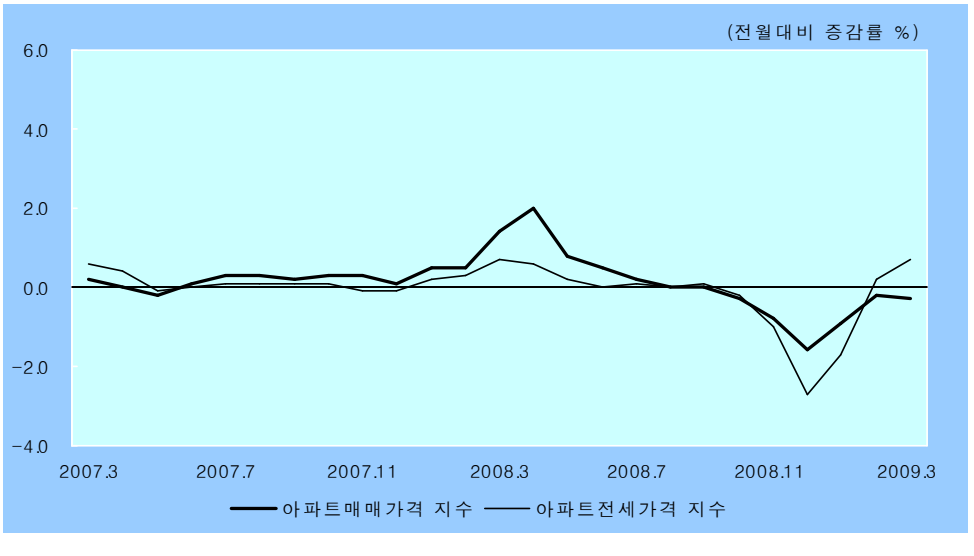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상승세 지속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38.6%로 지난달 상승세 반전이후 상승세 이어감. 1월 38.2% -> 2월 38.3% -> 3월 38.6%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3월 전국 평균 52.4%보다 13.8%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대비(14.0%) 소폭 축소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1.3%, 강남 36.4%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9%p이며,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중·자·금·사·정 |

단기시장금리 큰 폭 하락

금리

■ 단기시장금리 소폭 하락

- 단기시장금리는 기준금리 동결(3.12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단기유동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 이를 반영 시장금리와 연동된 은행 여신금리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

■ 장기시장금리 하향안정세 지속

- 장기시장금리는 국고채 금리를 제외하고는 하향안정세 지속
- 회사채금리는 상대적 고금리로 인해 거액자산가, 서민금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하락세 지속
- 그러나 국고채 금리는 추경용 국고채 발행에 따른 수급부담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반등

주가

■ 3월 KOSPI 지수 연중 최고수준 상승

-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 완화, 각국의 적극적 경기대응정책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국내주가도 연중 최고수준으로 상승

(08.10.24일 939p → 12월말 1,124p → 09.1월말 1,162p → 2월말 1,063p → 3월말 1,206p → 4.7일 1,300p)

■ 3월중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로 전환

- 외국인 투자자 2월 중순 이후 순매도로부터 3월 중 순매수로 전환

· 외 국 인: 08년 10월 -4.9조원 → 11월 -1.9조원 → 12월 +0.8조원 → 09.1월 +0.7조원 → 2월 -1.1조원 → 3.2일 ~ 4.7일 +2.3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금리	국고채(3년)	5.1	4.87	3.97	3.44	3.78	3.69	−0.09
	CD(91일물)	5.38	5.45	4.68	3.22	2.70	2.45	−0.25
	콜금리(1일)	4.97	4.00	3.27	2.43	2.06	1.77	−0.29
	장·단기 금리차[1]	−0.28	−0.58	−0.71	0.22	1.08	1.24	0.16
주가	KOSPI	1,651.10	1,073.95	1,114.90	1,156.37	1,139.75	1,140.45	0.70
	KOSDAQ	627.5	310.48	324.98	355.10	377.44	390.98	13.54
환율 (₩/US$)		982.5	1400.81	1368.8	1354.68	1440.19	1,453.35	13.16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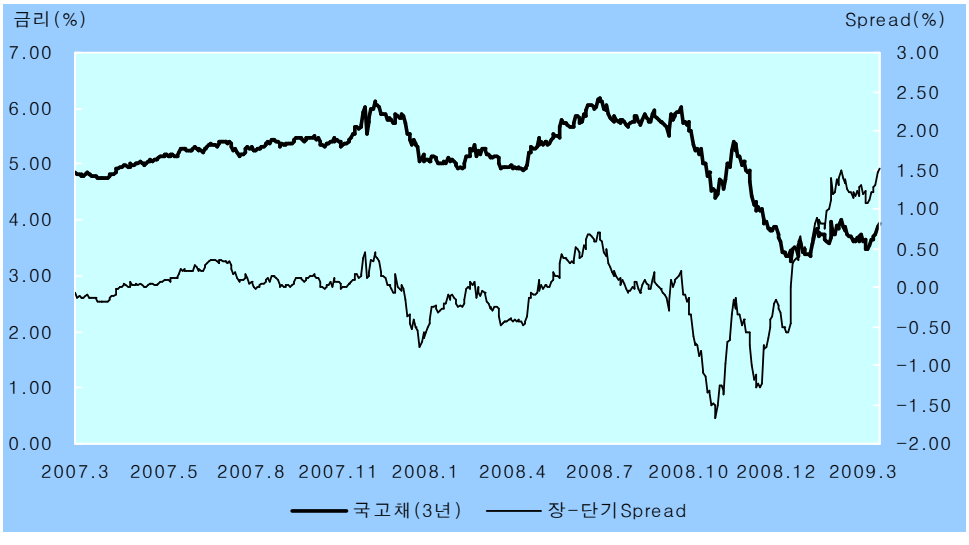
-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LTV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대출 수요, 개인사업자 운영자금 및 가계 생활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 (2월 +2.8조원 → 3월 +1.9조원)
- 반면,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가계소비 위축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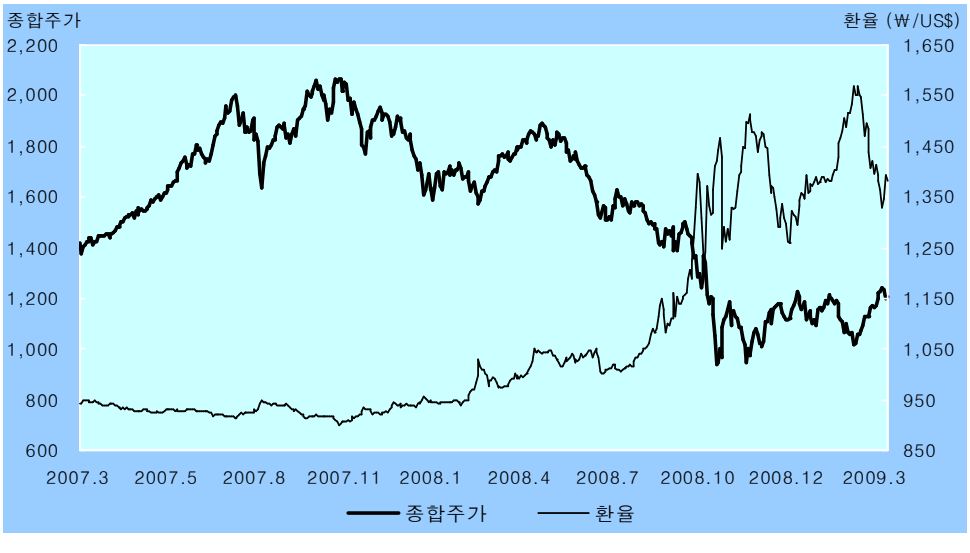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8년	2008년		2009년			월말잔액		
							2009년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11월	12월	1월	2월	3월	2월	3월	
가계대출[1]	25.0	1.8	1.6	−1.7	2.8	1.9	389.7	391.6	0.49
주택담보대출[2]	18.1	1.8	2.3	1.8	3.3	2.5	244.8	247.3	1.02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6.8	0.1	−0.8	−3.2	−0.3	−0.6	143.3	142.7	−0.42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 2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09조 3,151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 7,281억원(0.23%) 증가
- 2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97조 332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조 763억원(0.22%) 감소

〈표〉 서울시 금융기관[1]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예금은행	822,528.9	920,259.6	917,110.1	921,674.4	926,602.2	4,927.8	0.53
	비은행기관	258,043.2	286,214.6	284,509.3	284,912.6	282,712.9	−2,199.7	−0.77
	합계	1,080,572.1	1,206,474.2	1,201,619.4	1,206,587.0	1,209,315.1	2,728.1	0.23
서울	예금은행	352,812.4	408,252.2	406,595.4	410,284.8	411,650.6	1,365.8	0.33
	비은행기관	80,187.3	89,060.1	85,589.5	87,824.7	85,382.6	−2,442.1	−2.78
	합계	432,999.7	497,312.3	492,184.9	498,109.5	497,033.2	−1,076.3	−0.22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2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2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62.4%를 나타내어 지속적인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반전(08년 11월 61.5% → 12월 61.9% → 09년 1월 63.1% → 2월 62.4%)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1월까지 지속된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08년 11월 87.6% → 12월 88.2% → 09년 1월 89.5% → 2월 88.6%)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1] 추이

(단위 : %, %p)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 국	86.8	87.6	88.2	89.5	88.6	−0.9
서 울	58.7	61.5	61.9	63.1	62.4	−0.7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Ⅰ 창·업·동·향 Ⅰ

2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2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227개로 전월의 3,664개에 비해서 15.4%(563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10.4%(398개) 증가
- 이는 계절적 요인(설명절: 2008년 1월, 2009년 2월)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중소기업지원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정

■ 서울 전월대비 신설법인 증가

- 2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409개로 전월대비 17.9%(214개) 증가.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 서울 모든 업종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2월 중 서울의 모든 업종에서 전월대비 신설법인 수가 증가하였으며, 건설 및 설비업은 115개로 전월대비 82.5%(52개) 크게 증가
- 서비스업은 1,095개로 16.9%(158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197개로 전월대비 2.1%(4개) 소폭 증가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2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3,829	3,331	3,797	3,664	4,227	563	15.4	398	10.4
서울	1,399	1,146	1,328	1,195	1,409	214	17.9	10	0.7
서비스업	1,185	965	1,075	937	1,095	158	16.9	-90	-7.6
제조업	108	130	191	193	197	4	2.1	89	82.4
건설 및 설비업	106	51	59	63	115	52	82.5	9	8.5

자료: 중소기업청

| 어·음·부·도·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2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4%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30개로, 전월(262개)보다 12.2%(32개) 감소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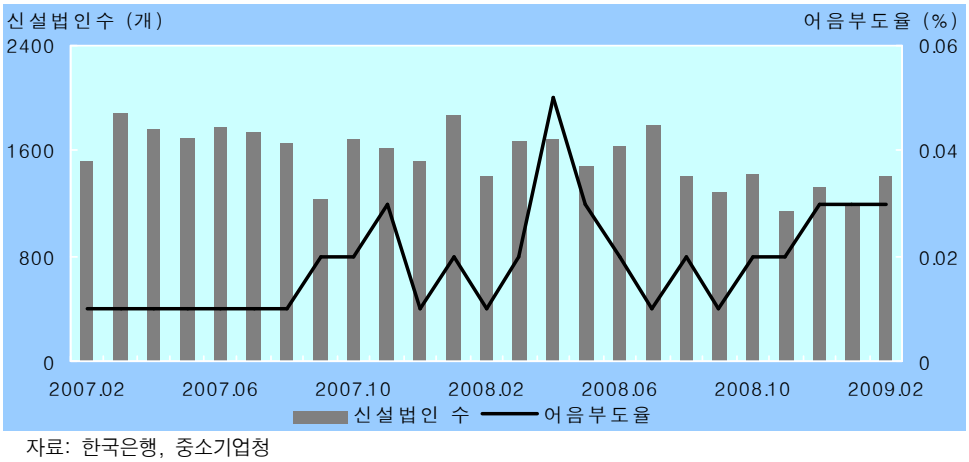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73개로 전월(104개)보다 29.8%(31개) 감소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2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3	0.04	0.04	0.04	0	0.0	0	100.0
	부도업체 수	186	297	345	262	230	−32	−12.2	44	23.7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2	0.03	0.03	0.03	0	0.0	0	200.0
	부도업체 수	66	91	120	104	73	−31	−29.8	7	10.6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월간 신용보증공급 최고치 기록

■ 보증공급 총량지표 대폭 증가

- 3월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8,873건, 178,725백만원으로 전월 대비 건수 기준 86.8%, 금액 기준 80.0%의 증가율을 나타냄. 전년 동월대비 건수 기준 572.7%, 금액 기준 240.0%의 괄목할만한 성장세
- 이는 「서울시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및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보증공급 건수 및 금액의 총량지표 대폭 상승에 기인
- 다만, 상대적으로 소액건의 보증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건당평균금액은 다소 감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8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319	3,888	3,679	2,336	4,749	8,873	4,124	86.8	7,554	572.7
금액	52,566	63,816	63,648	44,774	99,315	178,725	79,410	80.0	126,159	240.0
건당평균금액	39.9	16.4	17.3	19.2	20.9	20.1	-0.8	-3.8	-19.8	-49.6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 비중 증가

- 3월 업종별 신용보증 변동 현황은 전월대비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 비중은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 비중 감소
- 전체 업종 중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을 합한 비중이 건수 및 금액기준 모두 40% 초과,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전월대비 건수기준 0.6%p, 금액기준 0.9%p의 증가세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730	3,316	2,030	1,830	967	8,873
비율	8.2	37.4	22.9	20.6	10.9	100
금액	19,638	67,635	36,221	36,333	18,988	178,725
비율	11.0	37.8	20.3	20.3	10.6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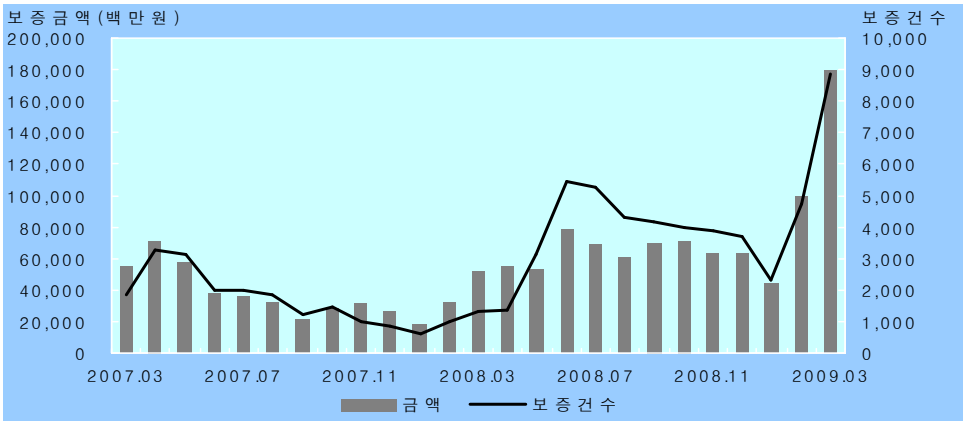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정부의 신용보증공급 집중 지원 확대 정책에 발맞추어 재단의 주요 지원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3월 집중업무처리기간을 운용한 결과, 동년전월대비 건수기준 86.8%, 금액기준 80.0% 보증공급 증가율을 보임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계속적인 정책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등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지원규모 역시 연초 목표보다 대폭 증가 예상.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지속적인 확대추세 전망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9.01	2009.02	2009.03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2,243	4,551	8,552	4,001
	비율	96.0	95.8	96.4	0.6
	금액	39,255	89,629	161,899	72,270
	비율	87.7	90.3	90.6	0.3
소기업	건수	72	161	263	102
	비율	3.1	3.4	3.0	-0.4
	금액	3,624	7,854	13,257	5,403
	비율	8.1	7.9	7.4	-0.5
중기업	건수	21	37	58	21
	비율	0.9	0.8	0.6	-0.2
	금액	1,895	1,835	3,572	1,737
	비율	4.2	1.8	2.0	0.2
합계	건수	2,336	4,749	8,873	4,124
	비율	100	100	100	0
	금액	44,774	99,315	178,725	79,410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출·입·동·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전국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 달성

-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42.9억달러 흑자를 달성함으로써 '98.4월 최대 흑자기록(38.5억달러)을 11년만에 갱신
- 선박류의 수출호조, 환율효과 및 조업일수 증가(3일) 등에 힘입어 지난달에 비해 수출액이 26.1억달러(10.3%) 증가
- 반면, 유가·원자재가 하락 등으로 수입액은 지난달에 비해 12.56억달러(5.6%) 증가에 그친 것이 가장 큰 요인

■ 전국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대비 감소

- 3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0% 감소한 280.7억달러, 수입은 35.9% 감소한 237.8억달러를 기록
- 지난달보다 흑자 폭이 크게 늘어 사상최대의 흑자 달성. 지난달 흑자액(29.3억달러)보다 13.6억달러 증가

■ 서울의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3월 서울의 수출은 25.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9% 감소하였고, 수입은 55.6억달러로 25.5% 감소
- 서울의 경우는 전국이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42.9억달러)를 달성한 것과 달리 무역 적자(29.7억달러)로 나타나 지난달(29.1억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

■ 3월 기준 수출 1순위는 금은 및 백금,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금은 및 백금이 246,871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편직물,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600,735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의류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금은 및 백금이고,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으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5,992	29,015	27,118	21,368	25,458	28,068	−7,924	−22.0	2,610	10.3
	수입	37,111	28,877	26,576	24,724	22,529	23,782	−13,329	−35.9	1,253	5.6
서울	수출	2,748	2,368	2,287	1,991	2,235	2,586	−162	−5.9	351	15.7
	수입	7,459	5,588	5,469	5,050	5,149	5,555	−1,904	−25.5	406	7.9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3월		2009년 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금은및백금	16,955	1,322.8	246,871	1,356.0
2	편직물	186,149	14.5	165,666	−11.0
3	무선통신기기	80,188	−3.8	145,600	81.6
4	컴퓨터	132,595	53.6	132,275	−0.2
5	반도체	183,573	−12.2	114,286	−37.7
6	자동차부품	133,417	33.8	113,516	−14.9
7	자동차	75,504	28.4	100,801	33.5
8	고무제품	122,497	14.3	95,587	−22.0
9	합성수지	112,498	9.8	91,228	−18.9
10	의류	96,769	4.3	76,272	−21.2
합계		2,748,470	18.2	2,585,565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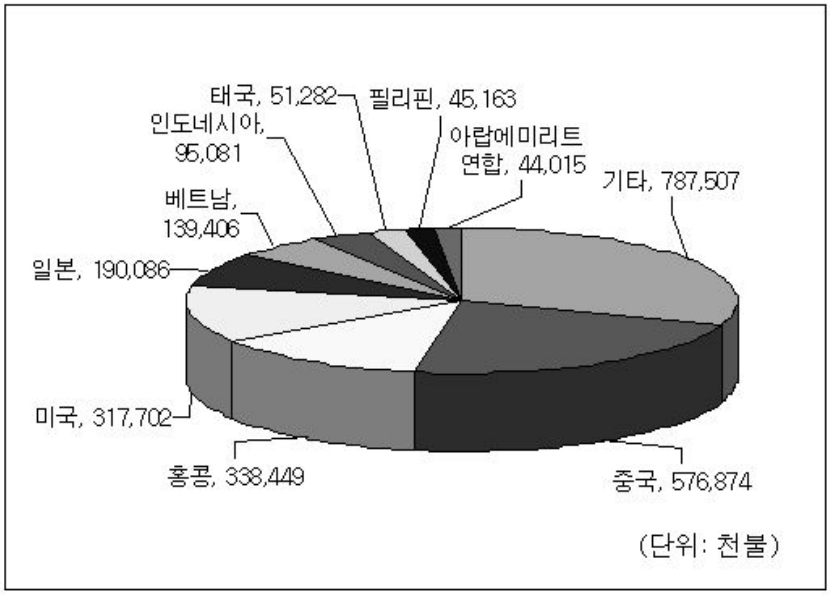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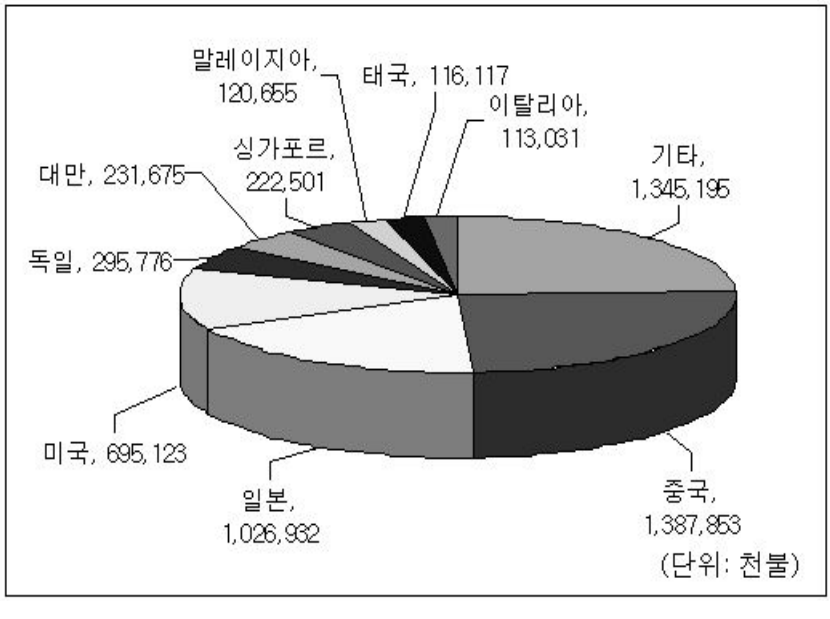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3월		2009년 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784,160	96.1	600,735	−23.4
2	컴퓨터	589,504	−0.2	385,261	−34.6
3	석유제품	127,267	−6.8	270,303	112.4
4	의류	283,994	27.3	216,277	−23.8
5	플라스틱제품	81,624	10.0	151,684	85.8
6	자동차	257,181	−3.4	149,355	−41.9
7	농약및의약품	148,618	34.9	141,416	−4.8
8	무선통신기기	128,402	37.7	135,098	5.2
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91,791	158.8	119,780	30.5
10	곡실류	135,992	57.6	105,230	−22.6
합계		7,459,031	36.3	5,554,858	−25.5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